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2024. 12. 8 (다해) 제2343호

함께 걸어나는
하느님 백성



복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루카 3,4ㄴㄷ

마리아

이춘만

2003

이콘, 콜라주

30,5×25,0cm

광주가톨릭박물관

입 당 송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 1 독 서 바룩 5,1-9

제 2 독 서 필리 1,4-6.8-11

화 답 송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복음환호송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복 음 루카 3,1-6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사랑합니다!

대림 시기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대림 시기의 의미는 대림 시기 전 반부에 바치는 대림 감사송 1에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곧 우리는 대림 시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두 차례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 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깨어 기다리는 시기로, 17일부터 24일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림 2주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다리며 회개하는 시기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자리를 잘 마련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특이한 점은 세례자 요한의 등장에 앞서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시 정치가들 및 유다 종교인들과 연관시켜서 세례자 요한의 등장을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등장이 세상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한 지역, 한 집단만이 아닌 세상 모든 이에게 오신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한 것일 것입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다시 오시도록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온 세상 안에 다시 오시도록 길을 마련하고, 길을 곧게 내는 시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대림 2주일을 인권 주일로 보내고, 이번 주간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지냅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논리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겠지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대림 시기여야 하겠습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 교회만의 대림 시기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안에도, 내 주위의 이웃에게도, 온 세상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내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대림 시기가 되시기를 빕니다.

이창현 사무엘 신부
홍농 본당



청소년위원회 (2)



청소년위원회에 처음부터 함께했던 청소년, 청년들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결실을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하



제8차 청소년위원회(2024.5.4)

는 것에서 더 발전하지 못했고 많은 인원이 대화하다 보니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 사목의 직접 대상이 유아부터 40대 미혼자에 이르고, 간접 대상은 조부모, 부모, 교사 등 관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른 세대의 이야기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경청'의 단계와 '기획'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실행'하는 단계로 확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청소년위원회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제8차 위원회(2024.5.4.)부터 논의를 시작하였고 제10차 위원회(2024.9.7.)에서 회칙을 제정하였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 곧 목적은 '교구 청소년 사목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실행하도록 돕는 것'으로 정했다. '청소년위원회'라는 용어가 자칫,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자발적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청소년 사목위원회', 곧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목적 모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사목에 경험과 이해가 있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로 위원을 구성하고 인원은 12명 내외로 정했다. 그리고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1) 청소년 사목의 직·간접 대상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2) 현실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며, 3) 청소년사목국의 장기적 안목

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4) 교구장님의 청소년 사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로는 청소년 회장단 연수, 청년 간담회, 청소년 분과장 및 대표교사 연수, 청

소년 사목 동반자 연수(사제, 수도자, 평신도) 그리고 '청구서'(청춘을 구하는 서로의 대화)를 활용하고, 구체적으로 위원회 때, 제 단체들의 대표를 2-3명 초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했다.

제11차 청소년위원회(2024.10.26.)에서는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 이후'라는 주제로 김관수 신부가 발제하였다. 청년대회라는 '행사'가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사목을 활성화할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 '너머'를 보면서 '지금'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대화 주제 가운데 '가정 안에서 신앙 이어주기'에서 나온 소주제들, 예를 들면 부모교육의 필요성, 부모가 해주는 자녀 축복, 함께 바치는 가정기도, SNS를 통해 가정의 대소사에 함께 경축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앞으로도 논의할 사안이 많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이 단순히 교회의 사목적 관심의 한 대상으로만 간주되지 않고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그리고 사회 개혁의 참여자로서, 교회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 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동반할 것이다.

김영호 비오 신부
성소국장 겸 청소년사목국장

제43회 인권 주일, 제14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요약)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1코린 12,19)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3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잃은 23명 가운데 18명은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며 꿈을 키웠지만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하였습니다.

수사 당국은 사고의 원인을,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생산 강행, 무자격 인력 공급 업체의 비숙련 노동자 투입, 급증한 불량률에 대한 무대책, 발열 전지의 선별 작업 중단 등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참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힘들고 위험한 일을 파견, 또는 하청 업체 노동자에게 맡기는 그릇된 관행,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비인간적 기업 경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본이 이제, 화성 아리셀 참사에서처럼 내국인 노동자보다 더 싸고, 책임 회피가 더 쉬운 ‘이주 노동자’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어, ‘위험의 이주화’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일이 ‘더욱더 약한 노동자’에게 내려가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사회의 탐욕 문화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화 안에서는 인간의 존엄은 부정되고 가치 기준은 “효율성, 가능성, 유용성”(『생명의 복음』, 23항)으로 대체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배척되고 소외되며, 특히 힘없는 노동자는 “그냥 버리는 소모품”(『복음의 기쁨』, 53항)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슬픔을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로 생각하며, 이 또한 영업 손실로 결산합니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는 사용하다가 버려도 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초대한 손님’이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법과 제도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241항; 『간추린 사회 교리』, 298항 참조). 그들은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인격체’이며, 우리 이웃이자 형제자매입니다(『두캣[DOCAT]』, 152항 참조). 그들은 “나는 너희가 필요 없

다.”(1코린, 12,21) 하며 차별하고 배제할 수 없는, 결코 그렇게 하여서도 안 되는 ‘우리과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픈 것처럼, 그들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1코린 12,23-26 참조). “외국인, 내국인 따지지 말고 다 같은 인간입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봐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유가족의 절규는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몸은 건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도 건강하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가장 약한 지체인 이주 노동자를 더욱 특별히 그리고 소중하게 안아 줄 때 우리 사회도, 우리 자신도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43회 인권 주일입니다. 이번 인권 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에는 특별히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나 외면받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기억합시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회적 참사와 구조적 불의에 무관심한 나머지 “이 모든 것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지 우리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복음의 기쁨』, 54항)하였던 우리 자신을 반성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한 우리의 편견과 혐오 그리고 차별과 우월감을 던져 버리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진정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환대, 보호, 증진과 통합의 시간’(『모든 형제들』, 129항 참조)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아리셀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고향을 떠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 선 태 주교

QR코드스캔 (담화전문보기)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께서 번역한 “뭐예요?” 시리즈

「별빛 마음 예수님 마음」,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
「반항 천사와 충실 천사」

성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대림 시기를 어떻게 보내 오셨나요? 아기 예수님을 뵈기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계신가요? 곧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더해 이맘때면 우리를 찾아오는 고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성탄 선물을 건네줄까 하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 아이를 위한 최고의 영적 선물, “뭐예요?”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뭐예요?” 시리즈는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빛 마음 예수님 마음」은 성탄,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에요」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반항 천사와 충실 천사」는 인간의 죄와 하느님의 자비를 다룬 책입니다. 세 권짜리 단출한 시리즈인 만큼 각 권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성탄, 비유, 죄라는 세 가지 주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축입니다. 성탄을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육화(강생)의 신비를 알 수 있고, 비유 말씀을 보면 가족관계와 우리가 사는 세상, 특히 일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를 알 수 있고, 죄와 하느님의 자비를 알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받은 용서와 구원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던 전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님께서 이 시리즈의 이탈리아어 원서를 보시고는 특별히 세 권을 선별해 한국어판 출간을 제안해 주셨고, 직접 번역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신앙인이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어린이 독자를 배려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부담 없는 분량 안에 담아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유 이야기를 다룬 「하느님 나라는 희망이



예요」에는 총 21편에 달하는 비유 말씀의 내용과 숨은 뜻, 오늘날 나에게 다가오는 의미까지 불과 36쪽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별빛 마음 예수님 마음」도 같은 분량 안에 성경 속 성탄 이야기, 성가정, 성탄 구유의 역사, 교회력, 성탄과 관련된 어휘들까지 풍성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앙 독서를 시작하기 전 읽는 발판으로도 손색이 없는 이 시리즈는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신앙과 책에 동시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고학년 아이들에게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하느님과 친해지는 기회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로부터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성탄 선물이 될 거예요. “뭐예요?” 시리즈를 아이와 함께 읽으며 하느님 자녀로서의 영적 유대감을 나눈다면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효주 효주아녜스 수녀
생활성서사 단행본 편집부

교구장 동정



- 12월 8일 사목방문(옹봉동)
12월 9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주교회의)
12월 9-10일 주교영성모임(왜관베네딕도수도원)
12월 15일 소공동체 축진팀 양성 수료식



성소국

교구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 12.14(토) 10:30
장소 : 교구청 성당
문의 : 062) 380-2280~1

교구 선교(볼리비아) 후원 안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선교 후원 계좌
광주은행 170-127-003379
(재)광주구천주교(선교)
문의 : 062) 380-2821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심리상담실



대상 : 심적 혹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신자
방법 : 전화 예약 후 상담 진행
장소 :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1층 103호
비용 : 유료
문의 : 062) 510-2890~1

교구청 직원채용 공고(1명)

자격 : 세례 3년 이상,
영어작문 · 회화 가능자 우대
조건 :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 홈페이지(www.gjcatholic.or.kr)
→ 자료 → 문서자료 → '입사' 검색
(본당신부 추천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기타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접수 : 12.16(월) 16:00까지
제출 : 이메일(gjsamu@hanmail.net)
혹은 우편접수
우편 보내는 곳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사무처 인사담당
문의 : 062) 380-2801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om FM 99.9 MHz FM 99.5 MHz

YouTube 페이스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OnAir

오늘의 강론 [월-토 (본방송) 06:50-07:00 / (재방송) 16:50-17:00, 23:50-24:00]

12.9(월)-11(수) 임동혁 신부(신대 본당) / 12.12(목)-14(토) 김동일 신부(대촌 본당)

'함께하는 세상, 오늘(시사 프로그램)' 매주 금요일 코너-'세상 읽어주는 신부' [12.13(금) 17:42-17:52]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인 박동호 신부와 함께 우리 사회 현안을 가톨릭 시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 중에 문자 (#5005, 100원 유료)와 뽕톡(어플 'cpbc뽕')으로 청취 소감 등 의견을 보내주시면 월말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함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종교 프로그램)' - '새 신자의 눈으로! 시즌2' [12.13(금) 14:30-14:50]

'새 신자의 눈으로' 시즌2로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합니다. 사회사목국 부국장 양완 토마스 신부가 출연하여, 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 어플 'cpbc뽕-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성바오로 여행사(문의 : 062) 381-9004 /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성모님 발현지(루르드, 파티마), 바르셀로나(12일) 3.11(화)-22(토)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gclei.kr 062) 380-2210~4

갤러리 380-2213 | 책터하기사랑도서관 380-2218

2024학년도 겨울특강 안내

스페인어(초급/야간)

강사 : 박보현

• 25.1.2-2.27, 8주간 / 매주 목 19:00-21:00 / 수강료 8만 원

톡톡 생활영어

강사 : 정호영

• 25.1.6-2.24, 7주간 / 매주 월, 목 19:00-21:00 / 수강료 7만 원

클래식기타

강사 : 서만재

• 종합반(평일) 25.1.6-2.17, 7주간 / 매주 월 10:00-12:00 / 수강료 10만 원

• 종합반(주말) 25.1.4-2.15, 7주간 / 매주 토 10:00-12:00 / 수강료 10만 원

※ 수강신청 방법 : 전화, 홈페이지 www.gclei.kr

※ 수강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홈페이지 온라인결제

- 입금계좌 : 광주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회(교육원)

※ 수강생 주차장 이용은 차량번호 등록 후 가능 ※ 수강문의 : 062) 380-2210~4

2024 교회음악원 발표회

• 일시 : 12.16(월) 19:00 • 장소 : 교구청 성당

2024 통기타 수강생 발표회

• 일시 : 12.18(수) 20:00 • 장소 : 교구청 대건문화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에게
기쁨과 희망의 손길이 되어주세요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모아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사목을 지원하고
이주민,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사용합니다.

〈후원 계좌 안내〉

농협 605-01-353182

광주은행 019-107-310370

국민은행 551-01-1449-309

신협 131-022-255227

-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동명이인 확인을 위해 후원회로 연락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062) 510-2881

노숙인 돌봄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는 노숙인에게
식사 제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와 함께할 든든한 동행자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

농협 301-0209-0858-41

기관·단체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교구 썰기도

일시 : 매주 월 09:30
 장소 : 교구청(쌍촌동) 3층 경당
 문의 : 총무 010-3162-0112

포콜라레 월례모임(중)에 초대합니다

일시 : 12.8(주일) 15:00(누구나)
 Zoom ID : 876 0662 7700
 암호 : 123456
 문의 : 포콜라레 062) 222-2800

소화자매원 후원자 및 직원 미사

일시 : 12.11(수) 14:00
 장소 : 소화자매원 지하성당
 문의 : 062) 675-4023

한재호 신부의 묵시문학

일시 : 12.16(월) 10:00-15:30
 장소 : 까리따스 교육관
 참가비 : 2만 원(중식 제공)
 신청 : 12.12(목)까지
 문의 : 010-7430-1401

cpbc와 수도회가 함께하는
청년 수도원 스테이 'YOU세미나'

내용 : 5곳의 수도원에서 2박 3일간
 자신을 알아가는 프로그램
 접수 : 12.17(화)까지
 진행 : 1-2월
 참가 : 만 15-35세 남, 여
 문의 : 카카오톡 'YOU세미나'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피정

기간 : 12.27(금)-1.4(토), 1.24(금)-2.1(토)
 장소 : 화순수도원
 문의 : 061) 373-3001, 010-3540-9001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개강 : 1월(각 6주 과정)
 강좌 : 구약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여러 얼굴들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방법 :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문의 : 02) 3276-7733, center.jesuits.kr

2025년도 불학기 CPE 학생모집

일자 : 2.11(화)-5.27(화), 2.15(토)-5.31(토)
 장소 : 천주교성요한병원CPE센터
 문의 : 010-2671-8174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 입문 / 중급 / 바오로영성
 방법 : 우편과 이터닝(동영상) 성경공부
 원서 : <https://uus.pauline.or.kr>
 문의 : 02) 944-0819~23

제주운전기사회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 010-4566-6476

기후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헌 옷 수거

일시 : 연중
 장소 : 소화자매원 내 소화아람일터
 문의 : 062) 710-4030

제주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연말연시(한라산 포함) : 12.30(월)-1.2(목)
 한라산눈꽃산행 : 1.17(금)-19(주일)
 1.23(목)-25(토), 2.8(토)-10(월)
 2.14(금)-16(주일), 2.22(토)-24(월)
 문의 : 02) 773-1463, 064) 756-6009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장소 : 도쿄, 북해도, 나가사키, 오사카, 아키타
 순례비 : 3박 4일 120만 원(월 1회)
 문의 : 010-3645-9028

선교·수도회

예수의소화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개인적인 만남 수시 가능
 장소 : 광산구 노안삼도로 1371-36
 문의 : 062) 673-9633, 010-6670-9633

성삼의 딸들 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 담양군 대전면 대치1길 22-14
 문의 : 061) 382-2214, 010-7159-9674

천주교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 12.21(토) 14:00
 장소 :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 010-3800-1579

영원한 도움의 성모 구일기도(노베나)

12.10(화) 13:30 목포 가톨릭회관 2층
 12.11(수) 13:30 교구청(쌍촌동) 3층 경당
 문의 : 이종훈 마카리오 010-2809-4628

예수고난회 송년통독 피정

기간 : 12.30(월)-1.1(수)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피정비 : 1인 19만 원
 문의 : 062) 571-5004, 8004

예수고난회 월피정

일자 : 1.11(토) 음악의 시작-전례음악
 (시간경-성무일도)
 2.15(토) 삶에서 깨어나기
 3.8(토)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라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본 당

염주동 성당 여사무원 모집(1명)

자격 : 세례 3년 이상,
 PC 운용 가능 및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승합차 운전 가능자)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임신부 추천서,
 교적 및 자격증 사본
 마감 : 12.14(토)까지
 문의 : 062) 373-4799



목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25학년도 「제1기 중독전문가 2급 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 3.8(토)-11.8(토)
 수업방식 : 대면 및 비대면(ZOOM 및 동영상)
 혼합운영
 취득과정 : 이론교육(120시간) + 실습·학술활동·
 수퍼비전(120시간)
 → 원서접수 및 서류심사 → 필기시험
 인원 : 25명(조기 마감될 수 있음)
 수강료 : 이론 90만 원, 실습 및 학술활동비 별도
 (제1기 수강생에 한 해 이론교육비 30%
 학교지원)
 신청 : 12.16(월)-2.15(토)
 계좌 : 농협 301-0333-3404-51
 목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의 : 061) 280-5139
 E-mail kye@mcu.ac.kr

상설고해소

<< 교구청 성당

- 일시 : 화요일 13:30-15:00
 금요일 18:30-20:00
- 장소 : 교구청 성당 고해실
- 성사집전
 - 화요일 : 교구 내 수도회 소속 신부님
 - 금요일 : 골롬반회 신부님
- 문의 : 062) 380-2210~5

<< 산정동 준대성전

- 일시 : 수요일-주일 10:00-12:00
 화요일-토요일 14:00-16:00
 (월요일 휴무)
- 장소 : 산정동 준대성전 고해실(2층)
- 문의 : 061) 274-1004

광주가톨릭박물관 특별기획전시

이춘만 크리스티나 작가 소장작품전

Prayer: 이춘만의 기도展



2024. 10. 11 Fri

2025. 7. 25 Fri

광주가톨릭박물관 특별기획전시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광주가톨릭박물관
 GWANGJU CATHOLIC MUSEUM